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10월 18일(금)
(음력 9월20일)

Пятница
18 октября 2019г.
№ 41(11685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6일(수) 오후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김진석 촬영)

단신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에서 유나이티드 가족 음악회 열려

러시아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하는 유나이티드 가족 음악회가 10월18일(금) 오후 6시 30분 사할린 한인 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지를 비롯해 조한민(타악), 문세한별(해금), 추현탁(가야금) 등(4명), 전통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선보인다.

2019년 사할린 한국 전통 김치 축제

오는 19일(토) 10시 30분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한국교육원 주최, 동북아 청소년 협의회 후원으로 <사할린 한국 전통 김치 축제>가 개최된다. 사할린 한국 교육원 요리교실 강사 허은설현 선생이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김장하는 법을 가르칠 예정이다.

우리 성씨 바로 알기 강의 진행

10월 21일(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방일권 교수가 <우리 성씨 바로 알기> 특강을 할 예정이다. 학생들을 위한 강연은 정오 12시 사할린국립대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강연은 18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방 교수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와 주한인협회의 초청으로 사할린을 방문한다.

사할린주 2년 반 동안 임대주택 39개 동 건설 예정

사할린주에 2년 반 동안 임대주택 39개 동을 건설할 예정으로 2019년~2021년까지 11개 사할린 지역에 1,703세대의 입주자 확실히 되었다는 소식이 월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주 정부 회의에서 전해졌다. 2021년 말까지 남 쿠릴에 11개 동, 돌린스크에 5개 동, 아니와와 쿠릴스크에 각각 4개 동, 유즈노사할린스크에 7개 동을 건설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입수권은 우선적으로 청년 전문직 종사자, 한정 및 희귀 직종 대표, 국가예산 분야 근로자, 농산업체 근로자, 법무부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주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 임대주택의 입주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도록 했다. 각자 신청서는 단시간에 검토하고 기록해야 한다. 현재 사할린 주택담보대출 기관은 사할린과 쿠릴 지역에 52개 동 공동주택을 건설해 여기에 1,867가구가 입주했다. 이 주택들의 임대료는 지역 평균 시가보다 2배가 저렴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경우 1칸 방 아파트는 월 1만2천 루블리, 2칸 방 아파트는 월 1만4천 루블리, 3칸 방 아파트는 1만6천 루블리이다. 6개월간 임대주택에 거주 후 특혜 조건으로

개인 소유로 바꿀 기회가 생긴다. 무이자 주택담보대출이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또는 장애아가 있는 가정, 참전용사, 노후 또는 파손 주택으로부터 이주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쿠릴섬들에 영구 거주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편부모 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연간 3.5%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제공되고 연간 7%의 이자는 주거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에게 적용된다. 사할린주에는 임대주택만 아니라 상업적, 개인적, 사회적(파손 주택으로부터 이주민을 위해) 주택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약 26만5천m²가 건설되었고 올해는 300,000m²로 도약해야 한다. 2020년의 과제는 430,000m², 2021년부터는 사할린에 매년 500,000m² 건설을 목표로하고 있다. 올해 주택 건축 계획은 코르사코프, 토마리, 티모브스코에 구역에서 성취되었고 북 쿠릴과 노글리키시 지역에서도 과제를 처리했다. 주지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위원장들에게 향후 3년간 주요 건축에 따른 계획 및 설계를 11월 1일까지 작성하라는 과제를 부과했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한인문제 해결을 즉각 촉구!

사할린 한인들과 민간단체, 한국 국회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지난 16일(수) 오후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사할린 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박 회장과 함께 사할린주한인협회 김홍지 고문, 사할린주한인여성회 김웨철 회장이 방한했다.

1인 시위를 시작 직전에 특별법 제정 문제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연합회(회장 권경석), 지구촌동포연대(공동대표 배덕호, 김종철)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박순옥 회장, 김홍지 고문과 김웨철 회장은 강제동원의 아물지 않은 상처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하여 사할린 동포들이 1인 시위를 시작한 다며 그와 더불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도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과 동포연합회 남양주시 이수진 회장도 사할린 동포를 위해 영주 귀국 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인 시



위를 10월 30일까지 주 3회(월, 수, 금)에 걸쳐 펼칠 거라고 표명했다. 사할린 귀국자들은 이미 1인 시위 순서도 정했다.

사할린 한인단체와 장기간 사할린 동포 문제해결을 함께 하고 있는 KIN(지구촌동포연대) 배덕호 대표는 이번 사할린 한인들의 요구도 적극 지지하며 "강제동원과 미귀환, 반복되는 이산의 역사를 가진 사할린 한인들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펼치게 됐다"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할린 단체 대표들은 14일에 전해철 의원(민주당), 16

일 박정 의원(민주당)과 면담하였고 15일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재외동포담당 행정관을 만나 사할린 동포의 고충과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사할린 한인단체 대표들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소식을 사할린과 모스크바 등, 한국 여러 곳에서 응원하며 기다렸다.

10여 년간 통과하지 못한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을 위해 많은 사할린 한인들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길 촉구한다.

(온라인 서명: <https://forms.gle/pWavLo69cmYyf6gKA>)

(본사 기자)



海(바다)를 보면-하늘과 비슷하며, 天(하늘)을 보면-바다와 같다. 雙(쌍둥이)처럼 떨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영원히 함께 있음.

본지에 이 잔나 블라디미르 교수 (태평양국립대학교, 하바롭스크)로부터 하바롭스크 태평양 국립대 교수인 쌍둥이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투고되었다. 이잔나 교수가 취재한 장문의 인터뷰 기사를 다 옮길 수 없어 축소하여 자랑스런 쌍둥이 교수와의 인터뷰를 실는다.

김 알렉산드라와 박 엠피게니아는 쌍둥이다. 성은 결혼하여 남편의 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르다.

이 둘은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친구이자 파트너이다. 언제나 혼자 있는 일은 없다. 둘이 함께 다니기 때문이다. 주변으로부터 이목을 끄는 매력적인 외모와 지성이 완벽함을 보여준다. 알렉산드라와 엠피게니아는 사할린주 사흐초르스크에서 1985년에 출생했다. 알렉산드라가 언니이고 엠피게니아가 5분 차이로 동생이 되었다. 어릴 때는 태권도를 배우며 스포츠 방면으로 관심을 갖다가 법률가인 이모의 영향으로 법률가로서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국내 법과 재판에 따른 정의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법학 서적, 형사법 교과서, 법률 잡지 등을 읽기에 몰두하여 법학에 대한 깊이도 생겼다. 또한 2000년대 초기에 법 관련 드라마가 관심을 부추겼다. 그리하여 현재 쌍둥이 자매는 하바롭스크

두 개의 물방울처럼 닮은 쌍둥이, 같은 직업을 선택해

하바롭스크 태평양국립대학교 교수인 자매 김 알렉산드라와 박 엠피게니아 법학 준박사

의 태평양국립대학교 법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법률학부 <국가 및 법학>강좌에서 근무하는 법학 준박사이다.

- 물방울처럼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알렉산드라: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닮아 하나처럼 된 것이 이해가 안 돼도 늘 같이 다녔다. 우리는 서로가 협력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항상 공동의 결정을 내리고 서로에게 좋은 조언도 구한다. 동생의 조언은 항상 정확하고 권위가 있다.

엠피게니아: 쌍둥이라는 것은 좋은 행운이다. 우리는 외모, 생각, 느낌, 친구, 직장, 대학교도 모두 같다..

- 똑같은 자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렉산드라: 우리는 한 살 후부터 조금씩 목소리에서도 차이를 보여 친척들과 친구들이 구분했다.

엠피게니아: 저의 남편과 딸 알리사는 구별할 줄 알고 친구들도 구분하는데 가끔 저의 어머니는 목소리에 헛갈려 하신다.

- 법률가라는 직업을 알려줄 만한 명료한 특징은 무엇인가요?

알렉산드라: 공평함이다.

엠피게니아: 뚜렷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것이다.

- 두 자매는 일상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요?

알렉산드라: 법률가 직업은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법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무수한 연구를 하여 우수 법학 잡지에도 기사를 올리기도 한다. 법률문서 제출, 법전 연구, 재판 실습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엠피게니아: 때로는 식사할 시간도 없이 급한 일로 찾아와 도

와 달라고 하는데 법조인으로서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책임을 갖고 해결점을 찾고 있다.

- 직장 외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나요?

알렉산드라: 우리는 둘 다 운동을 좋아해서 여가가 있을 때 운동과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고, 여행도 좋아한다."고 했다

엠피게니아: 스포츠를 좋아해 태권도 (跆拳道) 세계태권도연맹 (WTF)이나 올림픽대회에서 경기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우리는 16 년동안 태권도를 배워 현재까만 4 단과 스포츠계 '스포츠장인' 후보로 올라 있다.

- 가장 흥미로운 법률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알렉산드라: 매우 흥미로운 법률적 문제가 많은데 대부분은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다양한 법적 분쟁에도 참석하기도 한다.

엠피게니아: 저는 형사 사건의 과학적 분석에 관심을 갖고 있다.

- 법률 전문가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알렉산드라: 교육과정이었다. 법률가는 일평생 배우는 사람이다. 다수 필요한 입법 정보를 빨리 숙지하고 익혀야 하는 자리이다. 법률 실습과 연구에 시간도 필요하고 창조적 기술도 필요한데 과학적 경험과 분석이 도움이 된다.

엠피게니아: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웠다. 논문에만 5년이 걸렸다. 마지막 2년간은 휴일도 명절도 없었고 하루 14시간 논문 작성에 몰두했다.

- 법률가로서 어느 정도 창조적인 노력을 하는지요?

알렉산드라: 법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과 의사소통 과정에 창의적인 능력이 필요해서 교육방

법의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엠피게니아: 법적 표준을 벗어난 창조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 법률가로서 가장 중요한 인간적 자질이 무엇이라 보는지요?

알렉산드라: 근면성, 동정심, 침착함이다.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만큼, 중대한 책임감과 양심을 가져야 한다.

엠피게니아: 정직성, 공정성, 친절함이다. 솔직한 자세로 고객에게 헛된 희망을 주거나, 상황에 불공정하거나, 흥분하여 해결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상담료를 잃는 것도 두려워 말아야 하고, 무책임한 고객을 거부하는 것도 법률가로서의 자세이다.

- 법학을 전공하는 새로운 세대가 지녀야 할 중요한 특성은 무엇일까요?

알렉산드라: 융통성이 있고 교제의 범위가 넓으며 자신의 전공에 명확한 지식을 폭넓게 익는 것이다.

엠피게니아: 법률적 지식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지식을 깊이 있게 쌓는 게 필요하다.

- 고용주들이 법대 졸업생들에게 기대하는 학력과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요?

알렉산드라: 첫째, 졸업생은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법적 문서 작성 능력, 기본법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숙련된 전문가에게 관심이 있다.

엠피게니아: 학생들의 쿠투르 참여 여부, 스펙 쌓기로 사회 활동에 참가, 검찰청에서 실습, 소송법 서류 익히기, 소송 사건에 참관 등으로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 참여로 시각을 넓히는 사람에게 고용주는 관심을 갖는다.

-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숙련된 법률가를 찾는 방법은?

알렉산드라: 첫 상담 때에 법조인의 태도가 중요하다. 일어난 사건에 백퍼센트 긍정적인 결과를 절대 보장하지 못하므로 양심적으로 솔직하고도 강경한 태도로 대하는 법률가가 좋다.

엠피게니아: 100%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 법조인. 다른 동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법률가는 피하는 게 낫다. 나은 해결을 위해 성공 사례가 있는 다른 법조인을 소개할 줄 아는 사람이다.

- 현대 사회에 어떤 법률가가 필요한가요?

알렉산드라: 현실성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는 사람. 최근에는 다목적적 법률문제 해결과 조언,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가가 필요하다.

엠피게니아: 법적 시야가 넓어 가동성, 신뢰성, 경쟁력 있는 법조인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때를 가리지 않고 의뢰인을 돕는 사람,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 법률 상담에 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법학을 선택해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바라는 바는?

알렉산드라: 법학을 배우는 학습과정에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연구하여 이 사회에 필요하고 훌륭한 전문가가 되길 바란다.

엠피게니아: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공에 맞는 곳에 취직하길 바란다. 자신이 쌓은 지식을 펼치고 확장시킬 수 있는 곳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

(글/ 이 잔나 블라디미르나 하바롭스크 태평양국립대학교 교수)
(감수: 박혜신)

이 모 저 모

사할린과 쿠릴 주민 중 영아를 둔 저소득층의 가정에 보조금 31 배로 인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5세~3세의 영아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지급되는 월 보조금 인상에 대한 요구 조항에 서명했다. 이 새로운 법안은 202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가 지급하는 월 보조금은 러시아 각 지역에 있는 아동의 최저 양육비와 같다.

정보에 따르면 2019년 사할린 지역에서 첫 3개월간 영아에 지출되는 최저 금액은 15,518 루블리였다고 밝혀졌다. 이 금액은 실제로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의 31배에 달한다. 현재 1.5세부터 3세까지의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은 매달 50루블리를 받고 있는데 인상된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아이들을 포함해 가족 전체의 소득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1.5세 이전의 영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받는 보조금 규정도 개정되었다. 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1인당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의 두 배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급 받기 1년 6개월 전부터)

새로운 법령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가진 국민들의 등록을 확대할 전망이다.

Пособие для малоимущи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 детьми вырастет в 31 раз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б увеличении ежемесячных выплат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м семьям, в которых есть малыши от полутора до трех лет. Новый закон вступит в силу в 2020 году. Ежемесячная выплата от государства будет

приравнена к прожиточному минимуму ребенка — в каждом субъекте России он сво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 сведениям за первые три месяца 2019 года, сумма минимальных расходов на малыша составляла 15 518 рублей. Эта цифра выше действующего пособия в 31 раз — сейчас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е семьи, в которых есть дети от 1,5 до 3 лет, получают лишь 50 рублей ежемесячно.

Чтобы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увеличенное пособие,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нужно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ить справку о своих доходах в пересчете на всю семью, включая детей. Средняя сумма на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согласно новому закону, н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двух прожиточных минимумов.

Также пересмотрен порядок назначения выплаты, которую получает один из родителей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до полутора лет. Теперь для оформления этого пособия среднедушевой доход в семье также не должен быть больше удвоенного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раньше полтор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новый закон расширит список граждан с детьми, которые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사할린 주민들 만두 축제에 참여 가능

오는 두 달간 만두 축제가 가장 맛있고 흥미로운 기획 행사가 될 거라 장담하며 일반 식품업체와 가공산업체들로부터 행사 참가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10월 24일까지 도시 전체 요리기획에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만두의 날은 주 중심의 주민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전통적으로는 12월에 진행하면서 이번 연말연시의 시작을 알린다. 올해 맛의 축제에는 주민들이 열광하는 만두 빨리 먹기 경연과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12월 중순에 개최된다. 주최 측은 행사에 더 많은 일반 식품업체들, 사할린의 반제품과 만두 식품 생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획 행사 프로그램을 앞으로 도 계속 확대해 가기로 했다.

한 달간 일반 식품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가운데 시내 카페와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에게 만두, 교자(튀김 만두), 라비올리(이탈리아 만두), 조지아 만두(찐 만두), 그 외에 만두류 제품을 1인분에 350루블리 이하로 제공할 예정이다. 미식 마라톤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 작성은 필수다.

반제품 생산자들도 예외 없이 <사할린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부문에서 구매자들로부터 인기 투표로 경쟁하게 된다. 자신의 만두 제품을 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10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식 마라톤 <만두와 그의 친구들>과 <사할린 생산자들의 가장 맛있는 만두>부문 시민들의 투표는 11월1일부터 시작된다. 축제의 결산으로 일련의 활동교실과 대규모 시식의 명절이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다고 시청 홍보실이 전했다.

На фестиваль пельменей могут заявиться южносахалинцы

Фестиваль пельменей обещает стать самым вкусным событием предстоящих двух месяцев. Открыт прием заявок от предприят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Заявить о себе в общегородском кулинарном проекте можно до 24 октября.

День пельменя уже знаком жителям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Традиционно он проводится в декабре и дает старт череде предновогодних торжеств. В этом году вкус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 полюбившимся конкурсом на скоростное поедание пельменей и большой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ой, также состоится в середине декабря. Организаторы решили пойти дальше и расширить программу события, задействовав в ней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число предприят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и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и пельм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8면에 계속)

<아리랑 무용단>, 서울 전국 아리랑 경연대회에서 금상 수상

서울시와 (사)서울 아리랑 축제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한 '2019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펼쳐졌다. 3일간 축제에 50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서울 아리랑 축제에는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이 초대되어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다. 전통 및 창작 아리랑을 통해 전국의 예술가들이 자웅을 겨루는 자리인 전국아리랑경연대회에서 늘푸른청춘 부문에서 사할린 아리랑무용단에 금상을 수여했다. 이들은 부상으로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서울을 다녀간 <아리랑>무용단 단원 6명은 이런 상을 탈 줄 몰랐다면 감개무량해 했다.

또한 10월 11일 서울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올려 퍼진 <춘천의병아리랑> 공연에서 사할린아리랑무용단 박영자 단장이 '사할린아리랑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사할린에 살면서 아리랑을 춤으로 표현하고 겨레의 정서를 이어가는 박영자 단장은 고국 서울 무대에 처음 올랐다는 감격에 눈물을 보였다.

14일(월) <아리랑>무용단은 안산 고향마을에서 영주귀국 어르신들을 위해 공연을 펼쳤다.

(본사 기자)



<러시아와 한국: 문화의 대화와 상호 영향>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지난 16일(수)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사할린 국립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 사회 연구소 공동으로 "러시아와 한국 : 문화의 대화와 상호 영향"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 니콜라이 바르틴 총장 직무

대행과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염승준 소장의 인사가 있는 후 사할린 국립대학교 법경제행정대학(학장 도견식)과 원광대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소장 염승준) 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학술회의는 도견식 사할린국립대 법경제행정대학 학장과 염승준 연구소장의 사회와 성종환 한국 토르플센터 대표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사할린 국립대 인문역사동양학대학 소속 교수 진임 엘비라(동대학 학장), 발리즈카야 이리나, 코르네예와 인나, 이콘니코와 엘레나 등,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정혜정, 문준일, 박해남, 정규식 교수 및 연구교수진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동북아시아 및 사할린과, 한국과의 관계와 협력 방향, 전망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 학술회에서 한국과 사할린의 참가자들은 사할린 한인 관련 연구를 목표로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싶다는 의견을 모았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기업가들에게 무료 서비스 센터 "나의 사업" 개관

사할린 내 사업가들이 <하나의 창구 원칙>을 통해 다기능센터로부터 재정 지원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상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10월16일 개관식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올가 쿠릴로바 극동 연방 지구 전략 시행청 대표가 참석했다. 예멜리야노브 거리 6번지에 위치한 기업가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 센터는 평일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운영하고 있다.

다기능 센터에는 사할린 사업가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3개의 창구가 있다. 이곳에서 기업가들은 증명서, 명세서 발급, 보고서 제출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두 명의 직원이 컴퓨터를 다루며, 인쇄 장비 이용, 빠른 인터넷 접속으로 사업가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서비스 센터 <나의 사업>에서는 사할린 사업개발연구소 전문가들이 사업가들과 신규 창업자들과 상담하고 이 중에는 투자 유치청, 사할린 지역개발공사, 기업 및 수출사업 지원센터, 기업개발 기금,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등

이 있다. 스페르은행 대표들은 계좌 개설과 전자 디지털 서명 발행을 도우며 수출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은 마케팅 연구에서부터 수출계약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해외 시장에서의 러시아 제품 홍보를 돕고 있다. 또한 기업 지원 센터의 직원들은 법률 및 회계 서비스, 세금 서비스, 세미나 및 교육을 제공한다. 금융지원 부서에서는 사업가들이 최대 300만 루블리의 소액 대출과 최대 1,000만 루블리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들과 가장 밀접하게 일하고 있는 연방 및 지역 서비스 전문가들이 <나의 사업>에서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 예로 연방 세무서, 토지대장 관리소, 토지 및 지도제작 등록처, 사할린주 재산 및 토지 관련부서 등이 있다.

<나의 사업>서비스센터는 러시아에서 중소기업과 개인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기획의 일환으로 개관되었다. 이는 기업의 조건 개선과 금융지원에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접근성 확대, 금융 혜택으로 기업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할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K-pop경연대회 진행

지난 11일(금)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K-pop 경연대회가 열렸다. K-pop 춤과 노래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날 자신의 실력을 한껏 발휘했다. 예선은 11팀, 그중 독창에 청년(여) 4명과 나머지 7명은 댄스를 선보였다.

최연소 참가자(10세, 11세) 3명으로 구성된 <Special(스페셜)>댄스팀은 인기가 가장 높았다. 이 그룹은 <에트노스>예술학교 학생들로 2년째 K-pop을 익히고 있다고 했다. <에트노스>의 또 한 그룹은 <KGD>팀이다. 이들은 한 달만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선을 통해 본선에 올랐다. 이 두 그룹의 담당교사는 김안나이다.



이날 모든 참가자들은 뜨거운 응원 속에 각자의 끼와 재능을 발휘했다.

또한 사할린국립대에서 여러 해 걸쳐 진행된 K-pop 축제 장면들이 상영되고 한국과 케이팝에 대한 퀴즈가 많은 호기심을 자아냈다.

경연대회를 후원한 동북아 청소년협의회 권순국 부의사장은 "동북아청소년협의회는 1996년부터 24년간 사할린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계속해 오고 있다."며 지난 2012년에 사할린에 처음으로 한국의 문화를 적극 알리기 위해 제1회 사할린 K-pop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된 점을 상기시켰다. 권 부의사장은 사할린 측이 원하면 동북아청소년협의회는 앞으로도 계속 사할린 청소년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경연대회 노래 부문에는 드료모와 알료나가 1등(상금 1만5000루블리)을 했고, 댄스 부문에서는 <GS>댄스 스튜디오가 금상(상금 3만루블리)을 땀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а Сахалине определили сильнейших в тансудо

Фестиваль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Кореи на кубок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Южной Кореи состоялся 13 ок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о второй раз, в этом году турнир собрал более 5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Холмска, Чехова, Синегорска 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ных школ единоборств сошлись на татами, чтобы выявить сильнейшего в тансудо — древнем боевом искусстве, являющимся предком тхэквондо.

—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тся для популяризации тансудо на островах. Нашим воспитанникам интересен этот вид спорта, сюда приезжают именитые гости, они помогают нам в развитии дан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у нас появится отдельная секция тансудо, а спортсмены, показавшие наилучшие результаты на этом турнире, отправятся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 Южную Корею,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икбоксинга Алексей Буторин.

Торжественное событие посетил почётный гость из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 президент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ции тансудо, обладатель чёрного пояса (10 дан) Нам Ин До, который поддерживает друже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с легендарным героем боевиков Чаком Норрисом. К слову, известный актёр начинал свой бойцовский путь именно с тансудо, когда проходил службу в армии в Южной Корею.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м Ин До выразил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организаторам фестиваля, пожелал спортсменам успехов и несокрушимой воли к победе.

— За свою жизнь я побывал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видел много соревнований и считаю, что Сахалин ничем не уступает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У спортсменов есть желание развиваться и достигать успехов в своём деле. А их наставники являются хорошим примером для молодёжи, — подчеркнул почётный гость.



Перед началом турнира участники показали мастерство владения боевыми искусствами и эффектное разбивание твёрдых предметов. Силу и мощь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не только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но и их тренеры, разбивая доски, пеноблоки и мраморные плиты.

После показатель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началась борьба за медали. Проявить себя в новом виде спорта и завоевать путёвку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старался каждый.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поединков победителями в своей весовой и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ях стали Чернов Артем (ЦБИ Остров), Васильцов Богдан (г. Чехов), Воронцов Сергей (ЦБИ Остров), Дудко Тимофей (ЦБИ Остров), Сетоблаев Тимур (СК "Патриот"), Морозов Евгений (ЦБИ Остров), Ким Марат (СШ "Кристалл"), Аншаков Кирилл (СШ г. Холмска), Комаров Родион (СШ г. Холмска), Полютков Артем (ЦБИ Остров), Апатьев Игорь (СК "Азатан"), Павлов Станислав (СШ "Кристалл"), Макаров Леон (СШ г. Холмска), Тайшихин Павел (СК "Русич"), Никулин Захар (СК "Патриот"), Лукин Алексей (СК "Патриот"), Федоров Александр (СШ г. Холмска), Тен Артем (СШ "Кристалл"), Микшенко Тимофей (СШ "Кристалл"). Сред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екрасной половины лидировали Рашова Мия и Гимранова Алиса из СШ Холмск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цы организовали одиночные пикеты перед парлам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16 октября в Сеуле перед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парлам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оялся одиночный пикет президент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с требованием о скорейшем принятии Спецзакона п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Для участия в этой акции в Сеул выехал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советник РООСК Ким Хон Ди,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ОСКЖ Ким Ве Чер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акции выступили РООСК,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репатриантов в РК,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ИН(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оддержать приехавших с Сахалина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при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ст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сахалинские репатрианты.

Перед началом одиночно-



го пикета состоялась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на которой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общили, что одиночные пикеты с требованием скорейшего реш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вопросов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плоть до 30 октября 2019 г. 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пн, ср, пт), эстафету возьмут на себя репатрианты, живущие в разных городах РК.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о сообщено также о том, что идет онлайн-сбор подписей в поддержку требований по ускорению принятия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инятие спецзакона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сахалинцам послевоенного периода рождения иметь право выбора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и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уехавшим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Справка.

Начиная с 1989 г. по 2019 г.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смогли уехать на ПМЖ в Корею почти 4400 сахалинцев 1-го поколен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живых осталось примерно 2700-2800 чел., из них только на Сахалин обратно вернулись более 60 чел., не вынеся расставания с детьми...

(Наш корр.)

Научные диалоги

16 ок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теме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иалог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культур».

Началу 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шествовало подписание меморандума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Института права, экономики и управления СахГУ (директор — То Кен Сик) и Института гуманитар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Вон Гван (директор — Ём Сын Джун), впервые встретившихся в общем науч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вшей заранее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м откликом на начало офици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остров приехала групп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вуза во главе с профессором Университета Вон Гван Мун Чжун Ил. Доклады зарубежных гостей (профессоров Чонг Хэ Чонг, Пак Хэ Нам, Чонг Кю Сик) отличались акцентом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ую проблематику в об-

ласти истории и социологии.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сообщениями по экономике, педагогике и филологии.

В контексте разноплановых гуманитарных тем неизменно звучали вопросы о важности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остижения мира,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исках собствен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формированной в условиях Сахалина. Основные положения выступлений ученых двух стран вошли в опубликованный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Россия и Корея: диалог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культур», двуязычные переводы которого были осуществлены господином Сон Джонг Хван.

Во время подведения итогов южнокорейские гости и сахалинские участники выразили желание продолж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единым научным вектором, направленным на изучение островной диаспоры.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Начин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570 руб. 9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проходи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 авиакосмических и обор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ADEX-2019

С 15 по 20 октября в городе Соннам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оходи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 авиакосмических и обор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ADEX-2019.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уется Корейской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корпорацией (KAI) и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этот раз в нё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430 компаний из 34 стран мира, что является рекордным показателем.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 1.730 стендов с образцами новейшей боевой техники - воздушной, наземной и космической. Впервые представлен макет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истребителя KF-X.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первый демонстрационный полёт боевого вертолёта LAN, разрабатываем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военными. Помимо этого,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истребители F-15K, KF-16, KT-1, T-50, F-35A. Группа высшего пилотажа из Австралии «Махх-G» покажет авиационное шоу. В рамках выставки состоятся симпозиумы по авиационно-косм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по теме развития наземных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будущего, а также по системам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средств. Кроме того, в программу входят различные семинары на профильные темы.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НС КНДР принял делегацию руководителей российских СМИ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КНДР Чхве Рён Хэ принял делегацию руководителей российских СМИ. Как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встреча состоялась 9 октября во Дворце съездов «Мансудэ» в Пхеньяне. Чхве Рён Хэ считается вторым человеком в системе власти КНДР. Его контакт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иностранных СМИ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примечательным и необычным событием. Это может означать значительное сближение КНДР и России. В тот же день делегацию приняли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Им Чхон Иль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ЦТАК Ким Чхан Гван. Руководител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агентств двух стран подписали новое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Делегаци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российских СМИ прибыла в Пхеньян 8 октября. В её составе глава Роспечати Михаил Сеславинский,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ТАСС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ервого канала Константин Эрнст,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директора ТАСС Михаил Гусман 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ТАСС Марат Абулхатин.

Компания LG Display полностью перешла на отечественное сырьё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LG Display добились стопроцентной замены импортного фтористого водорода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дисплеев и панелей на отечественное сырьё. До этого компания использовала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панелей OLED и LCD японский фтористый водород. Однако после введения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поставку в РК этого и других наименований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ачалась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по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ю в данном сегменте. В компании Samsung Display, между тем, недавно завершили тестирование фтористого водор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Ег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начать сразу после истощения имеющихся резервов.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нёс извинения за ситуацию вокруг министра юстиции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извинился в понедельник перед народом страны за громкий скандал, связанный с назначением Чо Гука на пост министра юстиции. «Я глубоко сожалению о том, что назначение Чо Гука вызвало такой мощный общественный конфликт», - сказа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крывая еженедельное совещание со своими помощниками. Заявление было сделано через час после того, как Чо Гук сообщил о своём намерении уйти в отставку. Мун Чжэ Ин признал,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ло от скандала, связанного с делом Чо Гука, однако он дал возможность повысить осведомлённость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о насущн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прокуратуры. Кроме того, его решимость реформировать прокуратуру дала мощный толчок проведению данной реформы. Мун Чжэ Ин обещал завершить реформу, несмотря на отставку Чо Гука.

В Сеуле отметят 100-летие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 Сеуле пройдёт фестиваль, посвящённый 100-летию корейс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Ряд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йдёт с 23 по 27 октября. Это научный семинар, показы фильмов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концерт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ходе семинара эксперты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ознакомятся с историей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и обсудят дальнейшие направления его развития. 26-27 октября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можно будет по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различными аспектами киноиндустрии, в том числе концепцией будущего развития в формате виртуальной реальности. Там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также постеры фильмов разных эпох, 27 октября состоит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концерт.

(RKI)

СМИ: Ким Чен Ын приказал уволить треть чиновников КНДР

В госаппарат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чались массовые сокращения,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ся по личному указанию лидера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а. Об этом со ссылкой на источники, хорошо осведомленные о ситуации в КНДР, сообщила японская газета "Асахи Симбун". По информации изда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аспоряжение было сделано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ом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года численнос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госаппарата должна сократиться примерно на треть. Ожидается, что своих мест лиша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озрастные сотрудник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отправлены на пенсию. Как утверждает "Асахи Симбун", Ким Чен Ын также приказал активнее назначать на руководящие

позиции молодые кадры и вообще в целом облегчить продвижение молодежи по карьерной лестнице. Кроме то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чиновникам было приказано активно изучать зарубежный опыт и перенимать различные полезные инновации и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есть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Как считают в японской газете, такое массовое сокращение бюрократического аппарат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оисходит из-за стремления руководства страны сократить госрасходы. На эти меры пришлось пойти из-за ухудш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страны, что стало следствием продолжающихся жестк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анкций против КНДР.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Материковские 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азличия и сходства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 32, 34, 36, 37, 38, 39)

В то же время, жизнь согласно единому кодексу строителя коммунизма и принципам советской идеологии, морали и «правилам советского общежития», стерла некоторые отличия между материковскими и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Однако, до сих пор остается мнение, что на менталитет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казались десятилетия японского господства. Посему считается, что менталитет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оставался на совет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японизированным».

За прошедшие почти три десятилетия после развал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уверенные государства, возникшие на обломках державы, прошли разные пут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и развития. Это повлекло за собой формирование различных условий существования корейских диаспор и продолжению дивергентных процессов в их среде. В обиходе уже такие этнонимы как «российские», «узбекские», «казахские» корейцы. Зачастую можно слышать, как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называют своих соплеменников в соседнем государстве «узбеками» и наоборот.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и прежде, не принимают в семью «коре сарам». То есть, подводя черту при

ходишь к выводу, что до сих пор разделительные грани между материковскими и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не стерты, более того, наметились разломы между группами ма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по разные сторо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границ.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через десятилетия речь будет идти не об субэтнической диаспоре ма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а о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России», «диаспоре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узбек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и т.д. Однако, это пока предположение, требующее аргументированного научного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На самом острове, как считает Пак Сын, соврем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уже не делится на «местные», «материковские»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групп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чти завершился процесс аккультурации в диаспоре, так как третье–четвёртое поколения русифицировались, утратили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многие элементы этн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Автор: Герман Ким,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истори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исследования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гук (Сеул)

РК, КНДР и Командование сил ООН провели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в Объединённой зоне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и КНДР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омандованием сил ООН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закончили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в пограничном пункте Пханмунчжом, пострадавшем в результате тайфуна "Линлин".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стороны проводили совместные работы впервые после 1953 года. Командование сил ООН в понедельник сообщило, что в период с 12 по 14 сентября была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а крыша пункта переговоров и проведены другие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Все действия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Ране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жкорейскими договорённостями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от 19 сентября были завершены работы по разминированию, ликвидации сторожевых постов, демилитаризации Объединённой зоны безопасности (JSA). Между тем,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тороны обсуждают плана совместных работ и правил эксплуатации данной зоны.

KBS World

В РК начал работу комитет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суицидов

9 сентября начал работу комитет пр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е РК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суицидов, который провёл своё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глав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Ли Нак Ёна. На нём обсуждались различные темы, в том числ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лан действий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суицидов. Ли Нак Ён заявил, что реальная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ачата впервые, и сегодня стоит задача по созданию прочной системы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самоубийств. Комитет будет ежегодно определять районы с наиболее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рисков для создания структуры поддержки уязвим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Будет вестись работа с одинокими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а также медицински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вязываться с центрам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здоровья. Близким людей, которые пошли на суицид, решено оказывать всевозможную поддержку, в том числе покрыти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расходов и стоимости юрид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а также создание программ душевного здоровья. С конца года решено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начать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системы учреждений экстренной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работающих круглосуточно.

KBS World

Число южнокорейцев-противников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 Севером увеличилось до 20,5%

Число южнокорейцев-противников воссоединения двух Корей возросло с 16,1% в прошлом году до 20,5% в этом году,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агентством Gallup Korea. Одновременно число сторонник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единения снизилась с 60% в прошлом до 53% в этом году. По словам экспертов, снижение уровня поддержки связано с провалом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и этом южнокорейцы всё меньше воспринимают КНДР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й угрозы. Список стран,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наибольшую опасность для РК, возглавляет Китай.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КНДР, на третьем Япония. В опро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200 респондентов,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погрешность составляет 2,8%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KBS World

В решении медицинских вопросов сахалинцам поможет Совет активного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 инициативой создать нов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вышли активные ж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Их поддержал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здрав. Объединение будет 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 островитян в вопросах, связанных с прохождением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принимать жалобы 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При выполнении этой работы совет сможет напрямую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учреждений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бласти.

Совет активного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заработал при четвертой поликлиник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объединение вошли активисты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имеющие большой опыт социальной работы.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выйдя на пенсию, не хотят сидеть без дела и трудятся на благо обществ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овета стал ветеран островного спорта Владимир Забелин. Он был одним из инициаторов создания объединения. Говорит, идея возникла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сахалинской сборной пенсионеров на всероссийскую спартакиаду. Островитяне, соскучившись по дому, захотели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ект, который помог бы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в решении медицинских вопросов. Вернувшись с соревнований, активисты связали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здрава и предложили свою помощь в работе с пациентами.

- У нас большая команда. В неё входят юристы и медики,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находятся на пенсии. Мы можем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 людей.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Владимир Забелин. - Мы могли бы, в том числе, помочь операторам горячей линии «1-300», взяв часть звонков на себя.

Идею создания совета поддерж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проводим масштаб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реформу. Чтобы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шла максимально эффективно, нам необходима постоянная обратная связь от жителей. Люди будут рассказыв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совета о проблемах с записью на прием к уз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В свою очередь руководство области сможет оперативно принимать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решения. Например, о привлечении кадров из других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ъединение также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 пожелания горожан по улучшению работы поликлиники и 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 островитян по вопросам, связанным с прохождением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Первое совещание с активистами прове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Он обсудил с членами организации, каким образом в работе совета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знания и умения, полученные ими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 У вас большой опыт подобной работы. Его можно эффективно применять и в работе совета, - отметил Антон Зайцев. - Считаю, вам нужно придумать свой бренд, по которому люди будут вас узнавать при личных встречах. Может, это какие-нибудь элементы одежды или бейджи.

Руководство области поможет совету в организационных и финансовых вопросах. Так, объединение намерено проводить форумы и семинары, а сво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тправлять на обучение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Кроме т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ъединения будут рассказывать островитянам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который был запущен в этом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Его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ть культурные и спортивные учреждения области.

В будущем Советы активного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появятся при каждой поликлинике и больниц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на переоснащение остров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ыделили 2,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Было приобретено 225 единиц новейшей техники. На капремонт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выделено 1,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что позволило обновить внешний вид более 20 больниц и поликлиник.

Кроме того, в 2019-м выросли зарплаты врачей и среднего медперсонала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Вдвое увеличен целевой набор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выплачиваются самые высокие подъемные в стране – от 1,45 до 2,6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йо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Медикам компенсируют до 25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аренду квартиры. В ближайшие 5 ле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65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е общественники внесли предложения в проект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области до 2035 года»

Обсуждение документа состоялось 11 октября в рамках пленарного заседания обла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Он был разработан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оек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здание в регионе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ластеров, перед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ысокопроизводитель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улучшение городских пространств и глубокую интеграцию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о все сферы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Документ общественникам представил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ист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лексей Успенский. В числе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 инициативы по созданию Сахалин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е древесины, развитию марикультуры и индустрии стройматериалов. Работа в эт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приведет к повышению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региона в борьбе за человеческий капитал.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к 2035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создадут более 10 тысяч высокопроизводитель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 Нам нужно расти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у себя в регионе. Чтобы молодежь оставалась, чтобы она видела потенциал для применения знаний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Поэтому в рамках стратеги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роме того, нам нужно развивать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жилищный сектор, транспорт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и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Одно из самых значимых направлений – туризм, – отметил Алексей Успенский.

Кроме тог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ближайшие 15 лет на островах будут уделять развитию городских пространств, повышению уровня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комфорта проживания.

Та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ние нового центра города. Его глав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 современные форматы городск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обустроят науч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парк с дополненной реальностью, «Японский квартал», аллею флоры и фауны Сахалина, молодежный сквер с зоной для воркаута и скейт-парком и арт-парк «Сахалин в миниатюре».

- Члены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предложили дополнить проект. В документ следует добавить раздел, связанный с развитием культур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обый акцент сделать на центрах притяжения: на современных домах культуры, музеях, библиотеках. Обсуждали важные вопросы поддержки материнства и детства,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и обучения. Рекомендовали удел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оциальном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у и ресурсному центру для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ла экологическая акция «Живи, лес!»

В рамках нее в селе Новотроицком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высажено более 300 деревьев и кустарников.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радиционно помогать сажать деревья при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простые сахалинцы.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нила Дударев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подобные акции станут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и у каждого жителя региона появится «свое» посаженное дерево.

- А лучше – неск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состояние нашей природ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лияет на качество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в регионе, – отметил Данила Дударев, добавив, что подобн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в регионе уделяетс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овые березовые, рябиновые, кленовые аллеи высаживают в разных уголк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и этом в области не только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 лесной массив, но и облагораживают территори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Ежегодно на большой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края высаживают новые леса.

- На каждое обращение к жителям с целью улучшения экологии мы получаем хорошую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Люди приходят охотно, с настроением, приводят детей и внуков. Они говорят, что хотят больше подобных акций, и мы стараемся идти им навстречу, – подчеркнул управляющий делам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Алексей Баяндин.

Основной задачей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является формирование береж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лесным богатствам нашей Родины, к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особенно среди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Саженцы деревьев для озеленен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бирали один к одному – достаточно рослые, по 1-2 метра в высоту. Специалисты минлесхоза отметили, что прижиться они должны отлично – сам материал хороший и время выбрано удачное, когда почка уже спит.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 «Живи, лес!» проводитс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же 8 год подряд. В текущем году она стартовала в августе. За два месяца ее проведения уже высажено свыше 1600 деревьев хвойных и лиственных пород, а также кустарников на 3,2 гектарах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Помимо посадки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очищали леса от мусора, ухаживали за сеянцами и саженцами и собирали лесные семена. Также за это время в школах проводились различные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и выставки.

В райо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правились бригады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жителям от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шесть медицинских команд. В их состав вошли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еоднократно отмечал, что медицинские осмотр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лжны быть не формальными, а качественными, детальными.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роходят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чтобы проверить свое здоровье и выявить опасность развития серьез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Второй этап – углублен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по обнаруженным патологиям и факторам риска. Эту работу в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специалисты по ведущим отраслям медицинской науки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 Медосмотры не должны вестись для галочки и положите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и, – подчеркну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шук на встрече с медицинским десантом. – Мало зафиксировать недомогание у человека. Важно разобраться и найти причину заболевания, ведь за незначительными симптомами может скрываться онкология.

Углублен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осмотры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в тех районах, где особенно остро ощущается нехватка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составе медицинского десанта – кардиологи, неврологи, онкологи, хирурги, урологи, офтальмологи, специалисты по ультразвуковой и функциональной диагностике. Перед командировкой на Сахалин врачи прошли строгий отбор. Каждый претендент должен был подтвердит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квалификации, опыт работы в практической медицине.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ималось после тщательной проверки этих данных и собеседования. В итоге, проверять здоровье сахалинцев и приехали врачи из Москв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Екатеринбурга, Тулы, Ставрополя, Волгограда, Красноярска, Иркутска, Оренбурга, Сочи и других городов.

- Я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Раньше и не предполагала, что побываю здесь. И не в качестве туриста, а смогу быть полезной, поделиться знаниями, опытом, помочь людям, – рассказала врач-эндокринолог высшей категории Наталья Дроздова из Тулы.

Первая бригада специалистов уже 14 октября отправилась на Северные Курилы. Далее медицинский десант будут встречать жители Охин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и других районов.

Подобный формат работы применяется в экспедициях на Курилы врачей медик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Рубежи России». Благодаря визит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удается отслеживать динамику заболеваний, проводить адресную профилактику опасных недугов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истему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команды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врачей побывают в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и в 2020 году.

Участники «Лидеров России» нужны на работе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руководителей «Лидеры России» продолжается до 27 октября. Руковод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йдя испытания, он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круп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гранты, наставничество от известных бизнесменов 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госуправления, войти в кадровый управленческий резерв страны.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т уже третий год. В этом сезоне ввели три специализации: «Наук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Финансы и технологии». К примеру, наставником на последнем направлении станет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ления П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ерман Греф, а призеры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должность в крупнейшей финансо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 специал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конкурсанты смогут пообщаться с глав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алаты, президентом НИИ неотложной детской хирургии и травматологии Леонидом Рошалем, академиком РАН, президентом «Лиги здоровья нации» Лео Бокерия.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Лидеров России» могут управленцы в возрасте до 55 лет. Для конкурсантов моложе 35 лет, достаточно двухлетнего опыта руководства. Для остальных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на руководящих должностях не менее 5 лет. Сфера работы значения не имеет.

«Лидеры России» проходят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Сначала предстоит в онлайн-режиме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 задания раскроют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и управлен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После сильнейшие участники соберутся в 8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ах, где посетят конференции, решат бизнес-кейсы и пообщаются с экспертами. В финальных испытаниях поучаствуют 300 самых перспективных конкурсантов из все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финал прошли 30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четверо из них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В борьбе за призовое место поучаствовал и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онлайн» Артем Российченко.

Напомним, «Лидеры России» – флагманский проект платформы «Россия - страна возможностей», которая была запуще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Его цель – найт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управленцев и дать им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За два года проект стал одним из самых масштабных конкурсов управленцев в мире.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е приняли около 43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한국교육원, 무술축제 개최

지난 13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무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홈스크, 체호브, 시네고르스크 등을 대표한 50여 명의 선수들이 이날 당수도과 태권도 경기에서 승부를 다투었다.



이번 무술대회에 남인도 국제당수도연맹 총재가 초대되어 이날 선수들을 격려했다. 무술대회는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이 주최, <오스트로브>동양무술센터(관장 안수학) 주관, 동북아청소년협의회(이사장 김연고)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에 앞서 선수들의 멋진 시범공연이 있었다. 사범들과 선수들의 실력은 정말 대단했다.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준 선수들은 한국에서 진행될 국제무술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또한 앞으로 사할린에서 당수도 종목의 설립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주스포츠포츠 홍보실 제공)

<장인들의 도시>문화체험 축제로 창작분위기 조성

지난 12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제2회 <장인들의 도시>문화체험 축제가 개최되었다. 사할린주한인회가 추진하는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짐>이란 기획으로 작년에 처음 개최된 행사는 이번에도 2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날 사할린주 산하 한국어교사협회(회장 이.코르네예와) 회원들,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대학(학장 임 엘비라), 한국어예비교원 파견팀, 문화센터 소속예술단체 등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홈스크 등지 학생들을 위주로 하여 한지공예, 한지 받침대 만들기, 태극기 만들기, 꽃신 만들기, 부채 그리기(탈, 민화), 복주머니 만들기, 한지 배지 만들기, 예코주머니 그리기 등을 펼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투호, 윷놀이 등 한민족 민속놀이를 체험해보고 일부는 <하늘>사물놀이 팀(지도 송 알리크)원들의 지도로 북과 징구를 치는 법을 익혔다.

이날 창작분위기에서 보낸 흐뭇한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2019 UNITED FAMILY CONCERT

UNITED FAMILY CONCERT

러시아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하는
유나이티드 가족음악회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일시 | 2019년 10월 18일(금) 오후 6시30분
Дата и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 18.10.2019г. (пятница) 18:30

장소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미라거리83A)
Место |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Мира, 83А)

주최 | 주 사할린 영사관, 사할린 한인협회
При поддержке | Фонд культуры United

주관 | 펌 유나이티드문화재단
Организатор |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Владивостоке,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2019년 사할린 한국 전통 김치 축제

Фестиваль кимчи на Сахалине

2019.10.19. (토) ; 10:30

주최: 사할린한국교육원

후원: 동북아청소년협의회

우리 성씨(姓氏) 바로 알기

МОЯ ФАМИЛИЯ 'ЧХЕ', А НЕ 'ЦОЙ'.

ХОЧУ ВСЁ ЗНАТЬ!

А КАКОВА ВАША ФАМИЛИЯ?
ЦОЙ? ТЕН? ТЯН?
ШЕГАЙ? ЭМ?

НО ПОЧЕМУ ЖЕ В КОРЕЕ НЕ ПОНИМАЮТ НАШИ ФАМИЛИИ?

ОТКУДА И КАК ВСЕ-ТАКИ ОНИ ПРОИЗОШЛИ?

НА ЭТИ ВОПРОСЫ ВАМ ОТВЕТИТ ПРОФЕССОР БАНГ ИЛ КВОН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한국외국어대학교 방일권 교수

■ ЛЕКЦИЯ 1 (для студентов)
21.10.2019 (пн.) 12:00,
САХГУ (Ленина, 290)

■ ЛЕКЦИЯ 2 (для всех)
21.10.2019 (пн.) 18:00,
ККЦ (Мира, 83А)

ОРГАНИЗАТО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канцелярия Ген.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 (4242) 46-24-30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 участники марафона, будут предлагать посетителям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ов города пельмени, равиоли, гедзе, хинкали и другие блюда дан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по цене не более 350 рублей за порцию. Чтобы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го марафона необходимо оформить заявку.

Не остались забыты и производители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они будут состязаться за признание покупателя в народном голосовании "Самые вкусные пельмени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заявить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необходимо до 24 октября подать заявку.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Пельмень и его друзья" и интерактивный опрос населения на "Самые вкусные пельмени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оизводителя" стартуют 1 ноября. Завершающим этапом фестиваля станет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серия мастер-классов и большо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праздни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доходы москвы предприятия больше 2 배 이상

러시아 연방 통계청은 각 지역의 개인 기업인으로 등록된 사업가들의 소득을 조사해 결론지었다.

분석가들이 내놓은 흥미로운 사실은 모스크바는 러시아 연방의 주요 도시로서 첫 대열에 끼지 못하고 사업자 소득액의 선두에는 다게스탄이 차지, 2위에

сахалин주가 자리했다.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개인 사업가의 연간 평균 소득액은 다게스탄이 1,960만 루블리였고 сахалин주는 1030 루블리였다. 경제적으로 사업 개발로 큰 수익을 얻을 거라 여기는 모스크바 개인 사업가들의 연간 평균 소득액은 640만 루블리에 그쳤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수도권에는 중소기업인 212,400명이 등록되어 있고 다게스탄에는 총 21300명, сахалин에는 1400명이 등록되어 있다. 러시아 연방 국세청 조사는 러시아 통계청의 조사와 다른 통계를 내놓았다. 국세청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개인 기업가들의 연간 평균 소득액은 다게스탄이 140만 루블리, сахалин는 340만 루블리였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모스크바의 통계 수치는 러시아 국세청 수치와 일치했다.

분석가들은 수도권 사업가들의 소득과 지방 사업가들의 소득 차이는 등록의 특성상 차이로 간주하고 있다. 지방 행정지역들에서는 대형 상점과 상업망도 종종 개인 창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런 업체들에서는 소매 수익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기업가 소득의 3분의 1은 직거래장, 전시회, 협력 행사에서 획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Сахалина зарабатывают почти вдвое больше, чем их коллеги из Москвы

Российская служба федера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и подвела итоги выручки бизнесмен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как

ИП,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Аналитики отметили интересный факт: Москва, как горо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вовсе не в первых рядах. Лидером по заработанным деньгам стал Дагестан, а второе место отда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следует из отчета ведомства, ИП в Дагестане за 2018 год заработал в среднем 19,6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а сумма составила 10,3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А в Москве, которая экономически считается куда более выгодной для развития бизнеса, средняя выручк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составила лишь 6,4 миллиона. При этом в столице Росси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12 40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Дагестане их всего 21 300, 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коло 14 тысяч.

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приводит свою статистику, отличную от Росстата. По данным экспертов ФНС, в Дагестане каждый ИП в среднем получил 1,4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за 2018 год, а на Сахалине — 3,4 миллиона. При этом данные по Москве совпадают с цифрами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чреждения.

Аналитики считают, что разница в выручке столичных бизнесменов и их коллег в регионах отличается из-за особенностей регистрации. В субъектах страны даже крупные магазины и торговые сети часто оформлены как детище ИП. На такие компании приходится около половины розничной прибыли. Еще треть выруч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дают ярмарки, выставки и коопера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ахалин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EDA.SAKH.COM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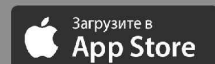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